전남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났다 5월까지 208억달러 역대 최고

2019년보다 49.4% 늘어
석유화학제품이 상승 주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전남도가 올 들어 5월까지 전남지역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0% 증가한 208억2000만 달러로 5월 누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2019년보다 49.4%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규모다.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석유화학제품이 지난해보다 23.9% 증가한 76억 달러, 석유제품이 105.1% 증가한 73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9.5% 증가한 2억5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김 9800만 달러(전년 대비 증가율 30.4%), 전복 2000만 달러(52.2%), 오리털 1500만 달러(53.4%), 분유 1400만 달러(9.1%) 등으로 증가세를 이끌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44억 달러(전년 대비 증가율 2.7%), 미국 6억 달러(62.4%), 호주 16억 달러(380.2%), 베트남 14억 달러(100.0%), 일본 13억 달러(16.5%) 순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착된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마케팅 지속 추진과 코로나19 완화로 3월 이후 재개된 미국 애너하임 식품박람회, 베트남 시장개척단 파견, LPGA 연계 우수 농수산식품 홍보 행사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마케팅을 함께 펼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케이푸드(K-Food)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자치단체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을 시작으로 유럽 등 7개국으로 확대하고, 우수 농수산식품의 코스트코 입점과 8개국 21개소의 전남 상설판매장 운영 등도 한몫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운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료 확대, 특례보증을 통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등 전통적 마케팅뿐만 아니라 아마존 브랜드관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운영할 전남 자사몰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변화에 적합한 마케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 학술대회…지역 주도 성장 한마음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여수에서 열린 '2022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패널 토론에 참가해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총리급 '(가칭)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 낙후지역 신산업 우선 육성 등을 주장했다. 사진은 개막식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내빈들의 기념 촬영 모습. 〈전남도 제공〉

순천·구례·해남·함평 농촌시가지 살리기 최대 428억씩 투입 5년간 정주여건 개선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

순천, 구례, 해남, 함평 등 4개 시·군 시가지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최대 300억원을 포함해 42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농촌시가지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쇠퇴 등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순천, 구례, 함평, 해남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며 시·군이 연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보존과 함께 일자리·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향상, 공동체 육성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농촌협약 공모는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전남은 2년간 보성, 나주, 화순, 장흥, 강진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이로써 22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의 시가지 개선 및 정비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 교육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중앙평가 중요 항목을 중심으로 계획성을 보완하고 전문가를 위촉해 내용의 질을 높여왔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존 사업과는 달리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복합적인 시설 개선 및 정비가 가능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농촌 시가지가 크게 변모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바라는 농촌시가지 공간을 창출하면서 농촌 환경이나 생태, 경관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 누가 되나

민주,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착수

광산 을은 조강특위서 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253개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공모에 착수했다.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이다. 관전포인트는 누가 '서구 을' 지역위원장이 되느냐이다. 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였던 '광산 을' 지역위원장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관심사이다.

20일 민주당은 당헌·당규 등의 원칙에 따라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지역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모가 끝나면 다음주부터 지역위원회 실사에 들어간다. 실사에서는 각 후보자에 대한 세평과 지역 정치권 분위기 등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뤄진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실사결과를 종합해 지역위원장 경선을 치를지, 단수후보를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에 선정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대를 앞둔 지역위원장 공모에서는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선출됐다. 문제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서구 을과 광산 을 두 곳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구 을은 신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였던 광산 을의 경우는 조강특위에서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양향자 의원의 경우, 이미 복당을 철회한데다 정치적 행보도 민주당과는 거리가 있어 이번에 지역위원장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라며 "광산 을은 민 의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한 만큼 새로운 지역위원장 선출 여부는 조강특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서구 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벌써 차기 총선을 노리는 인사들이 공모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서구 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기 보다 지역의 중립적 인사를 발탁, 직무대행 체제로 가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과열 경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광산 을도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직무대행 체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강기정 당선인, 광주 3대 현안 대통령실 건의

군 공항 이전·복합쇼핑몰 등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22일 군 공항 이전 등 광주지역 3대 현안 해결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진복 정무수석과 면담하고 ▲국가 주도 군 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유치 시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선정을 건의했다.

강 당선인은 광주와 대구 공항 이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복합쇼핑몰 유치 과정에서 국가 SOC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또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은 상생을 위해 3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았다"며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기에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광주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도 광주시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당선인 측은 전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헌법 전문 수록 내용이 빠진 것은 국회 입법사항이라 담지 않았을 뿐 대통령은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했고 의지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희중 대주교 "북한 초청 땐 교황 방북할 것"

한국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북측에서 초청하면 언제든지 가실 의향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주교는 이날 광진구주교회의관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주교는 최근 로마를 방문해 고위 성직자들로부터 들은 사항이라며 "북측이 교황 방북을 받아들일 환경 조성에 남북이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꿈은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평화협정을 맺고 교황님이 오셔서 이를 보증해주시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교황님이 가셔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유흥식 추기경님도 교황님 방북에 적극적이시니 협력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입북이 어려운 점이 있어 현실적 장애가 되겠다고 염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주교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문호를 넓혀달라는 주문도 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비핵화 방향으로 나간다면 얼마든지 도울 의향이 있다"며 "올봄 북한의 가뭄이 심했고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니 모내기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